
정기총회 개회사



회 장 曹 圭 常

오늘 제 25차 대한산업보건협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전국 대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성대하게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협회가 창립된 지 25년인 銀慶祝의 해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산업은 보잘것없는 상태였으며 노동행정은 보사부 노동국으로서, 지방행정 市道 사회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속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칙에 따라 保健管理者 교육을 받은 첫회 보건관리자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 반세기,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흥성하여 이제 올림픽까지 치를 수 있는 선진국 대열에 끼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경축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그늘속에는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희생이 뒤따랐으며 그 중에서도 이들에게 가장 귀중한 건강과 안전이 항상 뒷전에 놓여져 왔음을 우리 모두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사용자 책임으로서 마땅히 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사용자들은 기업에 주력하는 나머지 이를 등한시하여 왔고 행정부는 말단에 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였으며 의료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민간주도의 정부정책에 따라 산업보건사업은 본 협회를 중심으로 市道조직이 강화되었고 지역중심 보건시책에 따라 特殊保健協議會, 保健診斷協議會, 그리고 작년에는 一般保健協議會가 設立되어 보건사업의 기틀이 강화되어 나가고 있음은 경하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할때, 하여야 할 일, 갖추어야 할 일, 시정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 우리나라 산업보건도 근본적으로 쇄신되어야 합니다.

산업보건사업은 법, 조직, 기술, 인력, 자원과 협력등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오랜 경험과 주어진 여건에 있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이 분야를 담당하는 우리 스스로

● 산업보건사업은 법, 조직, 기술, 인력, 자원과 협력등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오랜 경험과 주어진 여건에 있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이 분야를 담당하는 우리 스스로가 단결하며 협력하여 시행 가능한 일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

가 단결하며 협력하여 시행 가능한 일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각 지부의 협력하에 본 협회는 올해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합니다.

첫째는 회원의 조직강화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협회회원이 되어야 할 보건관리자와 담당자의 사업장 배치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왔는데 올해는 지부조직을 통하여 지방노동사무소의 협력을 얻어 실태를 파악하고 미비치 사업장에는 이들이 배치되도록 주선하여 협회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오늘날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를 주고 있는 작업환경조건은 정확히 파악하며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의 실태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이러기위해서는 본 협회내에 설치된 각종 협의회를 통하여 회원기관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건자료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산업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 지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분야별 분과학회도 설립되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산업보건의 원동력은 연구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서만이 산업보건의 자질향상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얻어 표준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방법의 지침을 마련하고 중점연구과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대를 바라보며 선진조국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망되는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끌어 올리는데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회원들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대합니다.